

20세기후반 이후 패션 구성 방식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 -올리 탕,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작품을 중심으로-

양 희 영[†]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Modular System Expressed in Structural System of Fashion Since the Late of 20C -Focusing on the Fashion of Yeohlee Teng, John Ribbe, and Galya Rosenfeld-

Hee-Young Y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10. 30. 접수)

Abstract

Since the late 20C, a lot of fashion designers have considered about new construction system in fashion. Many arguments about architectural form and construction system have being supported on enlargement of range of functionalism fashion through the consideration about new shape and combination among various any other spheres. Modular concept, which is able to divide complex construction of integration into separated basic unit and use various and liberal arrangements, is regarded alternative idea of economic construction that creates new shape and constructive beauty through the simple operation and changing combination continuously. Specially, fashion designs of Yoehlee Teng, John Ribber, and Galya Rosenfeld are estimated that they are effectively utilized architectural modular system pursuing multi-function and multi-change in fashion. Modular system utilized in fashion construction wi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layering system of Yoehlee Teng, 2) combine system of john Ribber, and 3) lego system of Galya Rosenfeld. This thesis will presents beneficial guide for simple and practical functionalism fashion design development in 21C.

Key words: Modular system, Layering system, Combine system, Lego system; 모듈러 시스템, 레이어링 시스템, 컴바인 시스템, 레고 시스템

I. 서 론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패션에서는 새로운 구성 방식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축적 형태와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는 패션의 새로운 형태와 타영역과의 통합 등 기능주의적 패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중 구성 요소들 각각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분해하고 이들 사

이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체와 결합을 가능케 하는 건축에서의 모듈러(Modular) 개념은 단순한 조작과 결합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형태미와 구성미를 창조하는 경제적 구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건축 구성 방식은 그 효율성으로 인해 타분야로 널리 활용되어지는데, 특히 패션에서는 구성 요소들 간의 위계가 엄격하고 이들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이나 해체가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 요소들 간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시험하는 많은 시도들이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yang870927@yahoo.co.kr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e),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 자비에 몰랭(Xavier Moulin)과 이즈미 고히마(Izumi Kohama)의 IXI, 루시 오르타(Lucy Orta) 등은 모듈(module) 방식이나 폴딩(folding) 방식, 공기 주입과 같은 건축적 방식을 활용한 패션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이러한 방식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양희영, 양숙희 2006).

본 연구는 건축적 구성 방식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 기존의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게 보완한 것으로, 패션 구성 방식에 활용되어진 다양한 건축적 구성 방식 중 모듈러 시스템의 유용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율리 탕(Yeohlee Teng)과 존 리베(John Ribbe), 갈야 로젠펠드(Galya Rosenfeld)의 패션 디자인은 건축과 패션의 관계에 있어서 다목적이나 다변화를 추구하는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모듈러 시스템을 범주화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건축, 패션 관련 서적 및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 건축과 패션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잡지, 패션 전문서적,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율리 탕과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실증적 자료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실증적 분석자료로 이용할 상기 디자이너들의 작품사진은 패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한 경향이 두드러진 2000년 이후부터 2007년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실증적 사진 자료분석은 세 명의 디자이너 작품 총 450점 중 모듈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지는 188점(율리 탕 68점, 존 리베 75점, 갈야 로젠펠드 45점, 비슷한 디자인의 작품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디자이너들의 모듈러 시스템적 특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모듈러 시스템의 정의와 패션에 활용되어진 모듈러 시스템은 무엇인가
- 2) 율리 탕의 모던하고 미니멀한 다층적인 레이어링 시스템의 특성은 무엇인가
- 3) 다양한 패스너를 활용하여 길이와 너비, 형태와

실루엣을 쉽게 변화시키는 존 리베 패션의 컴바인 시스템의 특성은 무엇인가

- 4) 패션 공간을 단일형태의 반복적인 모듈로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와 실루엣을 창조하는 갈야 로젠펠드의 레고 시스템의 특성은 무엇인가
- 5) 상기의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 구성 방식에서 활용되어지는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은 무엇인가

II. 모듈러 시스템

1. 모듈러 시스템

신체에 착장되는 패션은 물론이고 건축 또한 신체를 척도로 활용하여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양자가 모두 인간 삶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것을 형태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의 공간에 대한 창조적 활동인 건축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단위척도가 기준이 되어 모든 건축의 설계에 이용되었다.

그리스의 폴리클레이토스(Polykleitros)의 비례체계는 전체 신체에 대한 각 부분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상적 인체 비례인 캐논(canon)을 형성하였으며, 비트루비우스(Vitruvius)에 의해 정방형의 인간(homo quadratus)으로 구성되었다(오현선, 2003).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통해 설정된 단위척도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에 기본단위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이전의 건축이 신체와 관련되어 '신체의 비례형식'을 구성 척도로 활용한 반면 20세기 이후의 건축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공간 구성'과 관련되어진다.

1960년대의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건축 또한 신체 개념에 근거하였다. 그는 공간의 크기를 계량하는 기본으로 인간 신체를 분석하였으며 독창적인 인간 척도 체계인 모듈러(Modulor)를 창안하였다. 이것은 인체를 토대로 한 신체 척도로, 부분에서 전체로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성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치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치수들의 조합은 무한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원윤경, 2002). 그는 전체를 부분들의 집합이 아닌 시스템들의 중합으로 파악하였는데, 건축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타입 오브제(type-object)적인 인식은 신체의 형태에서 비롯되는 기능과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 타입 오브제, 건축적 산책로 개념(원유경, 2002)은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형태에서 비롯된 기능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공간의 이동과 확장을 통한 시지각의 변화를 통해 미적인 감흥을 유도한다. 그의 이러한 건축적 인식은 인간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전체로 파악한 모더니즘인 조형인식에서 기인하였다(김석철, 2005)

1960년대 기계미학을 주도했던 아키그램(Archigram)과 쿽 힘멜블로(Coop Himmelblau)는 기계를 통해 신체를 확장하고 건물을 통해 걸으며 신체 내부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고 기계와 몸을 결합시키는 유동적 공간의 연속성을 드러내었다. 영국에서 일어난 건축 운동인 아키그램(Archigram)은 자연환경 속의 상호 조화를 중시하고 교환 가능한 이동성, 가변성을 지닌 건축과 환경창조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계적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움직임의 건축적 개념을 탄생시킨 아키그램은 미래적 건축 상황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가변 기하학적 구조체, 이동식 구조체, 캡슐 주택, 부푼 키트 등이 그것이다(양희영, 2007).

움직임을 통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은 현대 건축에서 건축물 전체의 움직임이나 변화보다는 용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용되어지는 동적 시스템으로, 문이나 창문, 또는 벽체의 일부나 전체를 이동시켜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1) 개폐(open and shut) 방식, 건축물 내부에 새로운 구조(벽이나 바닥)를 숨겨놓았다가 필요에 의해 이를 끄집어내어서 건축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는 2) 풀 드로우(pull-draw) 방식, 3) 건축적 구조의 일부분을 주름과 같이 구성하여 용도에 따라 이를 펼치고 접는 3) 폴딩(folding) 방식, 건축구성요소들은 작은 부분으로 해체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4) 모듈(module) 방식으로 분류되어진다.

개폐 방식은 주로 역사나 공항, 공공건물과 같이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은 건축물들의 내부 공기 순환이나 온도조절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초고층빌딩이나 고층 아파트에서는 1/2이나 1/4 개폐 방식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실내 환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풀 드로우 방식은 콘서트홀이나 갤러리와 같이 전시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켜야 하는 장소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숨겨져 있던 일부 벽이나 바닥의 이동

과 같은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결합, 확장하거나 축소시켜 전혀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폴딩 방식은 구조물의 접혀진 곳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만 풀 드로우 방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미적 감각보다는 공간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보다 고려해야하는 공항이나 항만, 역사 등의 저장고나 물류집합소 등에서 많이 이용되어진다. 모듈 방식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거나 유사형태와 크기가 반복되는 모듈로 구성되어, 보다 쉽게 건축물을 구성하고 이동성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위한 숙소나 간이 연주장, 간이 행사장 등에 이용되어진다. 특히 요즘은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천연재료를 이용한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간단하게 집을 건축하는 모듈 방식이 전원주택이나 펜션 축조에 각광받고 있다.

자유로운 모듈(module)의 교환에 의해 스타일을 재구성하는 독창적인 제작 방식인 모듈러 시스템은, 전체의 재구성이 아닌 어느 한 부분의 교체로 통해 나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이건섭, 2005). 이는 각각의 모듈로 구성된 전체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며 특정 부분의 조합만을 변화시켜 새로운 스타일로의 변신이 가능하므로 다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닌다.

2. 패션에 활용되어지는 모듈러 시스템

건축에서 이용되어지는 4가지 모듈러 시스템 중 패션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듈러 시스템은 각각의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분할시켜 이들을 자유롭게 결합시키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창조하는 모듈 방식과, 단순한 조작만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패스너를 활용하여 의복 구성 요소들을 접고 펼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폴딩 방식이다.

모듈 방식은 건축이나 기계에서의 요소들의 결합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패션 형태나 구조는 이러한 건축이나 기계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듈 방식을 이용한 의복은 착용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며 자체 관리가 가능한 환경(self-controlled environments)을 만들어 인간의 생활이 유기적인 자연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진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의 모듈 방식의 활용은 건축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후세인 살라얀이나 루시 오르타의 건축적 패션에서 보다 두드러져 나타난다.

후세인 살라얀은 기존의 틀에 박힌 의복보다는 공간과 건축적 원리를 활용하여 의복에서의 새로운 구성, 형태, 소재들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건축, 항공역학, 기하 공간역학을 이용해 의복의 다양한 변형을 시도하였으며, 비행기, 빌딩, 가구와 같은 구조들을 탐색하고 유동적 대상으로 이들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하는 매개물로 패션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모듈 시스템의 관점에서 패션은 인테리어의 작은 부분이며 이것은 다시 건축의 한 부분이고, 또 다시 도시환경의 일부분으로 확장된다고 인식하였다. 즉 각각의 부분으로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모듈 시스템은 가변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흐르는 공간을 공유하는 도시환경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루시 오르타의 패션은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루시 오르타는 인구의 크기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건축을 모방하여 유동적 시스템과 모듈 구조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의복, 건축, 주변 환경을 모듈 시스템에 의해 혼합함으로써 개별적인 유닛에 의해 변화되고 확장되어지는 공간 구성 방식에 있어서의 건축적 원리를 패션에 수용하고 있다. 그녀의 커넥터 모바일 빌리지(connector mobile village) 시리즈는 이동식 공동 사회(mobile community)의 기초를 구성하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개인은 사회적인 모듈 네트워크(modular social network)를 이용해 공동체에 합류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 시스템이다.

폴딩(Folding) 방식은 다양한 형태 조직과 이것들의 다양한 기능적, 형태적인 잠재적 가능성을 변화의 힘과 연결시켜 움직임에 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패션에서 공간을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며 이들을 소통시키기도 하는 패스너는 건축에서 접기(folding)와 펴기(unfolding)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표면으로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위상기하학적인 공간과 동일시된다. 이것은 각각의 지점과 공간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분리시키는 기능을 둘 다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적 변화가 가능하고 다목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패스너를 이용한 변화 가능성은 독립된 완결구조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패션에서의 열린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착용자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패션 공간을 자유롭게 형성하게 한다.

‘아이엑스아이(IXI)’는 자비에 물랭과 이즈미 고타마에 의해 1998년 창설되어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그룹으로, 이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홈웨어 시리즈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 이태리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선보인 그들의 ‘홈웨어(home-wear)’는 패션과 실내 가구와의 가변적 관련성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며 이용할 수 있는 패션이자 가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와 요시키 히시누마는 의복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패스너를 활용해 접고 펼치는 방식을 통해 의복의 형태와 길이, 실루엣을 변화시키고 있다.

III장에서 논의할 모듈러 시스템은 상기에서 고찰한 모듈 방식이나 폴딩 방식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올리 탱,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패션 구성 방식에 활용되어진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고찰이다. 상기 3명의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단순한 조작을 통해 패션 공간과 형태, 기능, 실루엣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듈 방식이나 폴딩 방식과 더불어 모듈러 시스템의 효용성을 드러내고 있다.

III. 올리 탱,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 패션에 활용되어진 모듈러 시스템

본 연구자는 올리 탱과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모듈러 시스템을 패션 구성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 레이어링 시스템(layering system), 컴바인 시스템(combine system), 그리고 레고 시스템(lego system)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올리 탱의 레이어링 시스템

올리 탱은 모듈러 시스템을 의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체, 의복, 공간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녀는 의복을 단일 공간으로 구성된 전체로서 파악하지 않고 자유로운 부분이 결합된 보다 다층적인 공간 시스템으로 인지하여 이러한 의복을 디자인하는 자신을 의복 건축가로 표현하였다(Bradly, 2002).

올리 탱은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을 패션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체, 의복, 공간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해 탐구하였는데, 그녀는 거대한 도시 공간이 점차

대중의 기호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중적 욕구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창조와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적이고 공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의복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적이고 마이크로적인 안식처와 건축과 기술이 통합된 매크로적인 안식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평가하였다.

상충되는 두 가지의 공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의복은 기존의 구성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구성에 대한 이해 방식을 요구하였는데, 율리 탕은 이것을 아키텍처의 모듈러 시스템에서 착안하였다. 그녀의 의복은 각각의 부분들이 분리되었으며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섬세한 재봉을 통해 의복의 유용성을 극대화하였다(Bradly, 2003). 따라서 그녀의 의복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각각의 의복은 모듈과 레이어링(layering) 측면으로 구조화되어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변화가 용이하다.

<사진 1>에서 보여지는 스커트는 착용자를 감싸기 위해 머리위에서 연장될 수 있는 백 패널에 의해 전위적인 형태의 솔로 변화가능하며 이것은 다시 크리놀린과 같은 형태의 스커트 실루엣을 형성한다. 케이프는 몸에 밀착되는 코트처럼 구성되지만 착용자의 신체를 광범위하게 감쌀 수 있도록 펼쳐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진

의복의 헴 라인 부분에 긴 끈(string)을 삽입하여 이들의 자유로운 조절에 의해 의복의 길이나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진 2>는 2006년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원피스의 헴 라인에 내장되어진 끈이 어깨선과 연결되어 단순한 끈 길이의 조절에 의해 원피스의 길이와 형태가 변화되어진다.

율리 탕은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을 ‘단순성에는 진실과 고상함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많은 정신적인 가치를 가진다. 미니멀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멈출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피력하였다. 그녀의 모듈러 시스템은 가변성과 유동성이라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창조하기 위한 잠재성을 패션에 부여하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조화된 안식처로서의 패션을 제안하고 있다.

2. 존 리베의 컴바인 시스템

존 리베는 의복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에 대한 탐구는 20여년이나 지속되어져 왔다. 형태의 변형과 직물과 패턴의 새로운 조작 방식은 그의 컬렉션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주제이다.

존 리베는 벨크로(velcro)를 이용한 모듈러 방식을 지속적으로 실험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방식에 의한 의복 구성과 착장방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복에서 각각의 패널은 다른 의복 형태로 구성되기 위해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슬리브리스 탑, 뷔스티에(bustier), 스커트와 드레스로, 이것들은 앞부



<사진 1>
Yeohlee Teng, 2005 F/W

<사진 2>
Yeohlee Teng, 2006 S/S

<사진 3>
John Ribbe, 2000 S/S

<사진 4>
John Ribbe, 2005 F/W

분과 뒷부분에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벨크로를 이용한 의복은 소매를 타이트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바지의 다리 부분이나 스커트의 패널을 오픈시킬 수도 있으며 재킷의 허리 부위를 죄거나 소매 길이를 조절하고, 이들 모두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벨크로를 분리하거나 결합시키는 간단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복 공간 변화에 효율적이다 (사진 3).

존 리베의 의복은 전통적인 의복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인 봉제를 생략하고 끈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과의 결합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고, 신체의 곡선에 따른 다트를 생략하고 벨크로를 이용한 방식이나 스냅 방식을 차용하여 의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착용자의 신체 사이즈와 의도에 따른 변화가 용이하다. 또한 의복 구성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봉제과정도 생략하고 각 부분들을 고리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구성 방식도 보여주고 있다.

존 리베의 모듈러 방식은 기존의 봉제 선으로 연결된 의복의 부분들을 독립시켜 착용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즉 전체가 불편인 단일체로서 인식되었던 의복 구성 요소들이 무한한 조합의 가능성이 열린 다양성의 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패스너(fastener)로 구성되어 각각의 패널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신체의 노출과 은폐에 대한 권한이 착용자에게 부여되어진다.

존 리베는 2005년 F/W 컬렉션에서 소매나 칼라, 어깨 끈, 재킷의 앞여밈 부분에 버튼이 달린 끈을 이용하여 의복 구성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더불어 실루엣이나 길이를 변화시키고 있다(사진 4). 또한 의복의 각 구성 요소들을 봉제에 의해 고정되고 확정적으로 위치시키지 않고 각 부분이 자유롭게 연결되거나 떨어질 수 있도록 단추를 이용하여 의복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존 리베 패션 스타일의 주안점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과 재료들을 혼합하는 대비(contrast)에 있으며, 이러한 그의 컬렉션은 창의적이면서도 웨어러블한 의상으로 전 세계의 유명 패션 매장을 통해 판매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패스너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컴바인 시스템을 패션 구성 방식에 도입한 존 리베는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나 질 샌더(Jill Sander)를 계승하는 독일의 차세대 유망 디자이너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3. 갈야 로젠펠드의 레고 시스템

갈야 로젠펠드의 작품은 패션, 디자인, 수공예, 그리고 예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녀의 의복은 기존 의복 구성 요소들의 형태를 그대로 지닌 모듈러 유닛의 결합에 의거하지 않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에서 벗어난 동일 형태의 작은 조각들의 결합에 의해 재창조하였다. 그녀의 컬렉션은 분리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고 연결되지 않은 조각을 구멍에 맞추어 개폐함으로써 소매를 연결하고 헴 라인을 변화시키고 내크라인을 재배열시킨다.

갈야 로젠펠드는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시스템을 창조하였고 이러한 구조들은 패션 세계의 레고로서 인지되었다. 의복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들은 울트라 스웨이드(ultra-suade)나 펠트와 같이 밀도가 높은 직물을 이용한 것으로 착용자에게 편안하게 착용되고 움직임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유연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수학적 방식에 의해 제작된 패션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사고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통적인 테일러링에서 사용하던 실이나 바늘, 패턴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갈야 로젠펠드 디자인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심이나 스티치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윤곽선을 따라 스타일리쉬한 룩이나 형태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1998년 하나의 유닛을 다른 것과 반복해서 연결하여 대상을 구성하는 모듈러 시리즈(Modular Series)를 발표하였다(사진 5).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며 면과 면을 연결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2가지의 텍스타일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로 다른 색채의 의복을 임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즌이나 계절이 변화할 때 기본 디자인을 즉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데 효율적이다.

갈야 로젠펠드는 2001년에 스냅을 이용하여 직물을 연결하여 제작한 스냅 시리즈(Snap Series)를 발표하였다(사진 6). 이것은 전통적으로 봉제된 내부 직물을 비가시적으로 연결시킬 때 스냅 테이프를 이용한 새로운 구성 방식이다. 스냅 테이프이 반대쪽 테이프와 연결되어 교차할 때 그것들은 90도 각도로 서로 교차된다. 스냅 테이프의 연결에 의한 구성 방식은 신체 위에 착용되었을 때 직물과 동일한 형태를 구성한다. 스냅의 튀어나온 부분(male)과 움푹 들어간 부분(female)

의 결합 부위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스냅 테이프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 격자무늬의 각도에 유연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방식은 2차원의 퍼즐을 3차원의 신체에 맞도록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갈야 로젠펠드는 지퍼를 이용한 의복의 모듈러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사진 7>은 신체 주위를 기하학적으로 감싸는 ‘오브제 드레스(Object Un Dress)’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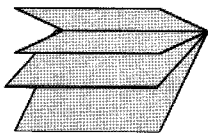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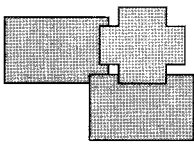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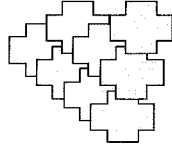
다. 이것은 315 피트 길이의 싱글 지퍼만을 이용하여 캡 소매와 하이 네크라인까지 구성한 원피스로서 지퍼는 목둘레 주변에서 연결되어 소매와 토르소 등의 신체를 따라 내려오며 힙 주변부까지 연결되어 진다. 지퍼는 풍성한 크리놀린 형태로 서서히 의복 공간을 확장하며 우아한 형태의 드레스를 형성시켜 신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올리 탱과 존 리베, 갈야 로젠펠



<사진 5> Galya Rosenfeld, 2000 F/W <사진 6> Rosenfeld, Glammore, 2001 S/S <사진 7> Galya Rosenfeld, 2001 S/S <사진 8> John Ribbe, 2000 F/W

<표 1> 모듈러 시스템의 특징 비교분석

특징	모듈러 시스템		
	올리 탱의 레이어링 시스템	존 리베의 컴바인 시스템	갈야 로젠펠드의 레고 시스템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의복 구성 요소 헴 라인에 끈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퍼, 벨크로, 단추, 링 등의 패스너 전통적인 의복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트라 스웨이드나 펠트로 만들어진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유닛 지퍼, 스냅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제에 의한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너를 활용한 결합 방식 봉제의 일부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닛을 이용한 반복적인 결합 방식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적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적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적 공간 구성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층적 공간을 통해 의복의 기능성 향상 장식을 배제 최소한의 구성선을 활용하여 장식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로 활용 헴 라인에 삽입된 끈에 의해 길이, 실루엣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합 방식에 따라 형태, 길이, 실루엣의 변화 사이즈 그레이딩 작업이 필요 없음 봉제, 다트, 턱 등의 구성선과 장식선의 일부 생략 패스너 자체의 배열방식, 광택이나 색상을 통해 장식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유닛의 반복적이면 서 기하학적인 결합을 통해 구성선 생략 사이즈 그레이딩 작업이 필요 없음 다양한 색상의 유닛 결합을 통해 장식적 효과

드의 모듈러 시스템의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IV.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

연구자는 올리 탱의 레이어링 시스템, 존 리베의 컴바인 시스템, 갈야 로젠펠드의 레고 시스템으로 분류되어진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성을 가변성, 결합성, 탈구성성, 단순성, 개방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부드러운 변형이 가능하고 새로운 소재의 활용 및 재활용이라는 모듈러 시스템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1.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

1) 가변성

모듈러 시스템은 변화 가능한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건축적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되어진 패션에서도 가변성은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성으로 고찰되었다. 이것은 각 부분들의 위계를 해체하고 각각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다양한 결합관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무한하다. 패스너를 활용한 컴바인 시스템은 패션의 아이템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길이나 실루엣, 사이즈 등의 제한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모듈을 동일한 형태나 크기의 유닛으로 구성된 레고 시스템은 형태나 실루엣 뿐만 아니라 아이টে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존 리베는 2000년 F/W 컬렉션에서 신체를 나선형으로 감고 있는 패넬로 구성된 ‘미이라 드레스(Mummy Dress)’를 발표하였다(사진 8).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현저하게 높은 칼라는 얼굴의 아래 부분을 숨기기 위해 위쪽으로 세워질 수 있다. 패넬을 해체하면 의복은 더 이상 신체를 감싸지 않으며, 헴 라인이 보다 짧게 구성되어지면 다리가 노출되고 이러한 패넬을 걷어내면 팔이나 몸통이 드러난다. 전체 드레스는 긴 스커트와 짧은 스커트, 셔츠와 뷔스티에의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착용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이라 시리즈(mummy series)에는 드레스로 변화되는 셔츠와 재킷으로 변화되는 코트, 그리고 셔츠로 변화되는 재킷이 있다. 이러한 의복들은

각각의 모듈이나 유닛을 결합하거나 해체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나 실루엣의 의복으로 변화 가능한 가변성의 특성을 지닌다.

2) 결합성

올리 탱의 레이어링 시스템은 봉제에 의해 각 부분이 결합되거나 다층적 공간으로 분할되어지는 것으로 결합되어진 각 모듈이 가변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각 부분을 많은 패스너로 결합시키는 존 리베나 모든 모듈을 동일 형태나 크기의 유닛으로 구성하는 갈야 로젠펠드의 구성 방식과 비교해보면 실용적인 면이나 착용자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보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패션의 외관을 추구하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기인한 것이다. 그녀의 레이어링 시스템에서의 결합성은 비록 공간 자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에서의 결합이기는 하지만 장식성과 기능성이 결합되어진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패스너에 의한 장식적 효과마저도 지양한다.

<사진 9>는 존 리베의 200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3개의 벨트가 결합되어 있는 스커트로, 착용 후 벨트를 조여서 신체에 밀착시키는데, 전통적인 의복 구성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한 직사각형의 천에 벨트만을 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벨트를 조이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로 변형되기 때문에 의복 구성시 사이즈 그레이딩(size grading) 작업을 필요 없게 만든다.

분리 가능한 모듈로 구성된 갈야 로젠펠드의 모듈 시리즈나 스냅 시리즈는 각 부분들을 분해하여 다른 형태로의 재구성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갈야 로젠펠드의 패션은 구성에 있어서 재단이나 봉제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어린이들의 레고 장난감과 같은 방식의 단순한 결합에 의해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의복을 창조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손쉽게 변형이 가능한 실용적 의복이다.

3) 탈구성성

모듈러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새롭고 기능적인 다양한 구성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단일 공간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레이어링 시스템과 동일 유닛의 반복적 결합이라는 레고 시스템, 지퍼, 벨크로, 링, 스냅 등의 패스너에 의한 컴

바인 시스템 등은 신체의 형태에 따라 의복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고 이를 봉제에 의해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전통적인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

<사진 6>은 ‘글램모어(GlamMore)’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갈야 로젠펠드의 하운드투스 스냅 드레스(Houndstooth Snap Dress)이다. 이것은 여러 가닥의 스냅이 부착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직물의 형성과 의복의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각각의 피스들은 스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이나 스티치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은 탈구성적인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갈야 로젠펠드는 지퍼를 의복의 볼륨과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듈러 조각인 동시에 기술적 장치로 간주하였다. 오브제 드레스인 <사진 10>은 스냅과 마찬가지로 의복 구성에 사용되는 패스너(fastener)인 지퍼를 이용하여 이것들의 단순 결합만을 통해 직물과 의복을 동시에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고, 싱글 지퍼로 구성된 다양한 길이의 층(tier)을 가진 의복을 통해 패스너를 활용한 새로운 의복 구성 방식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 개방성

각 부분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할하는 컴바인이나 레고 시스템 등의 모듈러 시스템은 변화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의복 구성을 위해 영구적인 결합 방식보다는 반영구적인 결합이나 해체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의복 공간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조형적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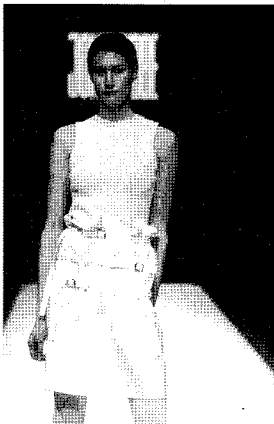
존 리베는 의복을 부분으로 분할하고 가장자리에 고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된 의복은 고리에 의해 각 부분들 간의 틈을 형성하며 연결되어진다. 또한 고리에 의해 연결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단위별로 많은 모듈을 구성할수록 다양한 의복 스타일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의복은 봉제에 의해 구성된 것보다 신체와 더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복의 각 모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의복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고리는 외부 공간과 신체 공간 사이의 작은 틈을 형성하여 내외부 공간을 상호 소통시켜 주는 열린 구조를 형성한다(사진 11).

고정되고 확정적인 봉제 방식을 이용한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은 자유로운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공간 구조에 기인한다면, 요소들 간의 결합을 해체시키고 이들을 상호 자유롭게 접속시킬 수 있는 패스너를 활용한 모듈러 시스템은 단순한 조작을 통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의복 구성 요소들을 이질적인 결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재창조시켰다.

5) 단순성

모듈러 시스템은 자유롭게 이질적인 모듈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경제적인 건축적 원리이기 때문에 모듈들의 형태나 결합 방식, 조작 방식이 단순할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창조에 용이하다.

따라서 모듈러 시스템에서 활용되어지는 해체와



<사진 9>
John Ribbe, 2006 F/W



<사진 10>
Galya Rosenfeld, 2001 S/S



<사진 11>
John Ribbe, 2005 S/S



<사진 12>
Yolhee Teng, 2006 S/S

결합을 반복하는 조각의 단순성은 착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폐쇄적 공간을 구성하였던 기존의 기능주의적 패션과는 달리 착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착용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은 결합되어지는 모듈의 변화에 의해 형태와 길이의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신체에 따라 복잡한 사이즈 그레이딩 작업을 필요로 하였던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과는 달리 하나의 패션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형태를 창조하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패션 구성 방식이다.

올리 탱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의 ‘어번 쉬크(Urban Chic)’는 깜짝 놀랄만한 단순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실용성과 최신식의 기능성을 갖춘 깨끗한 라인과 순수한 형태의 결합을 추구하는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옹호하고 있다. <사진 12>는 올리 탱의 2006 S/S 컬렉션 작품으로 스커트의 앞부분을 3부분으로 분할하여 다트를 없애고 분할선 부분에 주머니를 구성하여 구성선 내부에 주머니를 통합시킴으로써 기능과 장식을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2. 모듈러 시스템의 유용성

1) 부드러운 변형

착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이, 너비, 실루엣의 조절 가능한 모듈러 기법은 연속성과 이질적인 차이를 통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변형(smooth transformation)이 강조되는 조형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자유롭고 이질적 요소들을 연속적인 장으로 혼합하면서 전체적 특성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부드러운 변형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 동일한 형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것으로 열린 공간구조를 지닌 기능주의적 패션의 특징이다.

각 구성 요소들을 일정한 크기와 형태의 모듈로 분할하여 이들을 자유롭게 결합시키는 모듈러 시스템은 해체와 결합이라는 단순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창조한다. 이것은 레고 시스템처럼 동일한 유닛의 반복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창조하거나 봉제대신 스냅이나 버클, 끈, 지퍼, 단추 등과 같은 다양한 패스너를 활용해 실루엣과 형태를 창조하는 컴바인 시스템을 통해 단순 조작과 단순 결합이라는 평이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패션 자체의 형태와 실루엣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아이템으로의 변화가 용이하다. 또한 동일하거나 상이한 길이

나 형태로 반복되어지는 레이어링 시스템은 2차원적인 의복 공간을 다층화 시켜 열효율 시스템이 장착된 건축물처럼 신체와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거나 열 유입을 차단시켜 보다 첨단화된 과학 기술의 도움 없이 패션 공간을 기능화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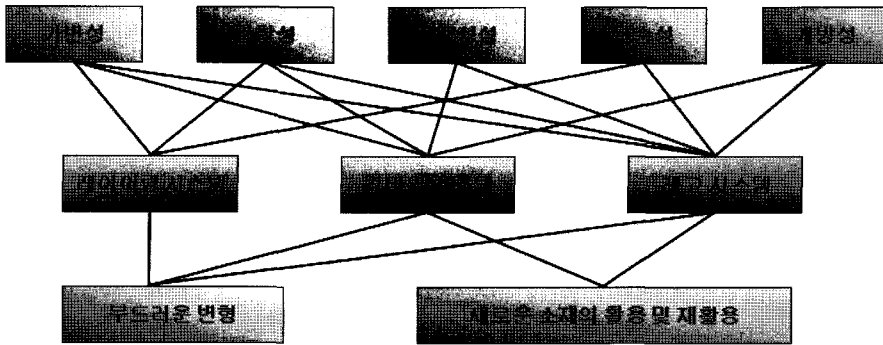
2) 새로운 소재의 활용 및 재활용

모듈러 시스템은 독립되어진 단일공간으로서 기능 하던 기존의 의복공간을 복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확장시켰으며,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에서 보조적인 용도로만 이용되던 패스너를 의복 구성을 위한 새로운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의복 소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존 리베의 패션에 이용되어진 끈, 링, 단추, 버클, 지퍼 등의 패스너는 신체 위에 착용되어질 공간에 보조적으로 부착되던 제한적 용도에서 확대되어 패션 디자인의 길이나 실루엣, 형태 등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존 의복 구성에 있어서의 봉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패스너는 형태 변화를 위한 기능적인 역할 외에도 자체의 반짝임이나 다양한 색채코팅을 통해 장식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봉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폐쇄적 구조인 다트나 턱 장식 등이 스냅이나 단추, 지퍼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자유롭게 해체가 가능한 열린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갈야 로젠펠드의 스냅이나 지퍼만으로 구성되어진 원피스들은 패스너 자체를 직접적인 패션 소재로 변화시켰다. 이들은 단순한 결합 방식을 통해 패션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해체과정 또한 단순하며 따라서 착용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다른 아이템으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다. 이때 원하는 색상으로 패스너를 착색하거나 스냅과 같은 경우 맞물리는 한쪽의 색상을 변화시켜 새로운 색채감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또한 모듈러 시리즈는 기존의 아이템에서 각각의 유닛을 해체하여 어떤 색상의 조각을 결합시키는지, 어떤 결합방식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 아이템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올리 탱과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

V. 결 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발 이후 패션이나 예술에서는 기존의 모더니즘적인 규율을 해체하고 이것에 반하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하였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를 구성하거나 유용성을 지향하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종종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폐쇄적 구조 하에서의 기능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도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과잉으로서의 무의미를 창출하는 퓨전적 경향은 이제 미니멀하고 단순한 요소들의 열린 결합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 더불어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후세인 살라얀, 이세이 미야케, 루시 오르타, IXI 디자인 그룹, CP company, 요시키 히시누마)은 가변적 공간으로서 패션을 인식하고, 새로운 구성 방식인 모듈러나 폴딩 방식을 활용해 패션을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 패션의 위상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1세기 기능주의적인 패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율리 탱,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패션 작품은 열린 구조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패션 구조의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활용한 건축적인 모듈러 시스템은 각각의 요소들을 변형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착용자 중심의 가변적 패션으로의 미래 패션의 발전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패션 구성 방식에 있어서의 모듈러 시스템은 자유로운 부분이 결합된 다층적인 공간 시스템으로서의 율리 탱의 레이어링 시스템, 패션에 있어서 봉제를 생략하고 다양한 패스너의 결합에 의해 실루엣과 형

태,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존 리베의 컴바인 시스템, 기존의 의복 구성에 활용되었던 구성 요소들의 형태를 벗어나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동일 형태의 작은 조각들의 결합으로 대체시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갈야 로젠펠드의 레고 시스템으로 분류고찰하였다.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은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모듈이나 유닛의 결합이나 해체라는 단순 반복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길이와 실루엣, 크기를 형성하는 다기능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으로 확대되었으며 가변성, 결합성, 탈구성성, 단순성, 개방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은 자유롭게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속적인 하나의 공간에 통합시키는 부드러운 변형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며, 이를 통해 단일 공간이던 의복 공간을 복수화시키고 의복을 구성하던 요소들을 전복시켜 패스너와 같은 보조적 도구들을 패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패션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율리 탱, 존 리베, 갈야 로젠펠드의 패션 스타일은 건축적 변화가 용이하도록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하며, 패스너를 이용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들 디자이너들의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21세기보다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주의적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은정. (2002).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공간디자인 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모던, 포스트모던 시대와의 비교를 중

- 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석철. (2005). *20세기 건축*.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용성, 정철오. (2005). *Smart Space*. 서울: 현대건축사.
-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은주. (2003). *현대 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다이안, 그렉. (2002).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 최왕돈 역 (2003). 서울: 시공아트.
- 마틴, 제이. (1996). *모더니티의 조망체계-미술과 건축공간의 해석*. 서울: 시각과 언어.
- 양희영.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베르그송과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희영, 양숙희. (2006).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건축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공간 구성 방식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복식*, 56(7), 85-100.
- 원윤경. (2002). *르 꼬르뷔지에 건축에서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선. (2003). *몸의 관점으로 본 현대 건축의 표현양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건섭. (2005). *20세기 건축의 모험*. 서울: 수유산방.
- 이승신.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표현주의: 복식과 건축의 유사성 고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은영. (2000). *예술영역의 탈장르화와 확장성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인선. (2002). *20세기 이후 실내디자인과 패션에 있어 조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radly, Q.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 Bradly, Q.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 Stern, R. (2004). *Against fashion*. London: MIT Press.
- Steel, N. V. (2001).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ress.